



마스크 착용은 누구를 위해서 인가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마스크는 입과 코로 공기 중의 먼지나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은 작업 현장에서 업종에 따라 마스크를 활용했다.

그런데 2021년 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바이러스의 예방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마스크 착용이었는데 마스크가 없어 대란을 이루었으며 마스크 다량 생산 공급에 국가 차원에서 주력했다.

코로나19는 급속도로 전염되어 우리나라는 대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천지 교화에 입성하여 전염하였으며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전염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전염이 국내 유행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어 6월 1일 시민들은 바깥 방역 지침에 어색해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장과 자율로 바뀌었지만,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마스크는 얼굴을 가릴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자와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세상에는 잘 생겼다는 사람보다 평균화된 보통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

스크 착용하는 것이 전염병 예방에도 좋고 얼굴 생김새에 신경 안 써서 좋다. 마스크를 쓰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구별 없이 얼굴이 평균화 되므로 얼굴 화장에 관심이 줄어들었다. 마스크를 쓰면 전염병이 예방되고 얼굴에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구별 없이 평균화되어서 좋다 한다.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먹이 사슬에 의해 강자가 약자를 먹이로 삼는 것이 순환하고 있으나 결국은 다시 최고의 강자인 사자나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자인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먹이로 죽는다.

결국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먹이 사슬에서 강육약식의 먹이 사슬이 되고 있다. 지구상의 어떤 강대국도 전 세계를 점령한 강대국은 역사상 없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을 점령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해주었다.

조물주 하느님은 인류의 종말이 인간이 만든 무기에 의함이 아니라 세균에 의해 멸망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마스크는 전 세계인이 착용하는 고마운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는 마스크를 애용하면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힘썼으면 한다. 마스크 착용은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착용해야 한다.

칼럼

폭염 대비 안전한 여름 보내기

기고

주영 장흥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소방경



기상청은 올해부터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 수준에 따라 폭염특보가 내려진다고 발표했다. 단순 기온만이 아닌 습도 등을 반영한 '찜통더위' 여부에 따라 폭염을 판단하는 것이다.

폭염이 계속되면 온열질환 등 폭염 관련 질환이 일어 나고 심각할 경우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이 대표적이며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상태악화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안전 안내 문자 및 기상청 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대처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대처요령으로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은 체내수분 유지와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양산, 모자 등을 착용하여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체온을 낮춰야 한다.

야외활동 중에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장흥소방서 119구급차에는 아이스 팩, 아이스조끼, 식염포도당 등 폭염대비 구급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출동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매뉴얼 교육도 실시하여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혹시 주위에서 온열환자를 목격한다면 곧장 시원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히고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 119대원들은 폭염을 포함한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완전 근절 합시다

변인석 강진경찰서 경무계 순경

"건설현장 갈취 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 많이 보셨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안전과 규제를 저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투고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악영향과 그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안전 규정 위반, 환경 오염, 불법노동 등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에 빠뜨리며, 환경 파괴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사회적인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고, 건설 산업의 신뢰와 발전을 저해합니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어떻게 해야 예방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강화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관련 기관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 인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안전



규정과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건설 산업의 윤리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건설 관련 단체, 협회,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과 단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감시와 단속, 교육과 인식 제고, 협력과 신고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우리 사회를 썩먹는 악성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입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